

# “13월 월급에 폴드3까지”... 이통사·은행·포털 인증경쟁 치열

(갤럭시)

민간인증서 시장, 고객확보 분주  
**네이버** 광범위한 당첨 이벤트  
 최대 100만원 페이포인트 지급  
**신한** 행운의 타이거를 잡아라  
 갤럭시Z 플립3 등 경품 추첨  
**PASS** 경품 추첨 이벤트  
 아이폰·백화점 상품권 등 제공

이동통신사·포털·은행 등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민간인증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시작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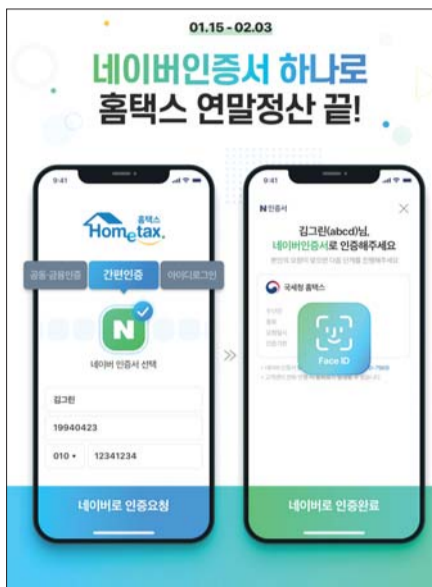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카카오, 통신3사의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등 기존 5개 사업자가 참여해 데 이어 올해는 네이버와 신한은행이 이 시장에 합류했다. 이들 기업은 각종 이벤트에 나서면서 고객 확보에 나섰다.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번째로, 지난해는 민간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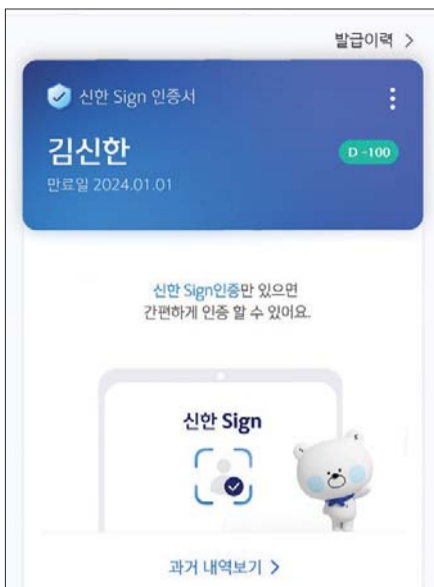
민간인증서 시장에서는 이통3사의 PASS가 3550만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어 카카오 3300만건, 네이버 2700만건을 비롯 금융인증서 1000만건, KB 모바일인증서가 960만건 등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와 신한은행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인증서를 제공하기념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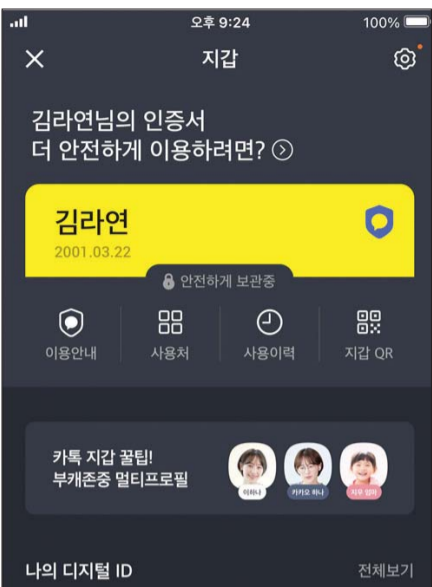
많은 제휴처를 보유해 편의성을 자랑하는 네이버 인증서가 2월 3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돼



네이버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 조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인증서를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당첨 이벤트를 개최한다. 14일까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네이버 인증서 첫 발급한 이용자와 15일~2월 3일 연말정산 기간동안 홈택스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 페이포인트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네이버 인증서는 2700만명의 사용자와 200개 이상의 제휴처를 자랑하며 지난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공단, 정부24 등 총 55개 정부 공공기관 사이트 간편인증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식 오픈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도 압도적인 도입률을 자랑하는데, 40개가 넘는 금융, 카드, 보험, 핀테크 등의 선택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한인증서가 적용된 기법으

로 관련 이벤트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

신한 인증서는 신한 솔(SOL)에서 1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3년 마다 갱신하는 번거로움 없이 생체 인증 및 PIN 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행운의 타이거를 잡아라’ 이벤트를 통해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한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 아이폰13프로, 갤럭시Z 플립3, 갤럭시Z 폴드3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NHN페이코도 연말정산을 맞아 페이코 인증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인증서를 발급 받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자동 참여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1명에게는 21만원을, 2021명에게는 2100원을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한다.

페이코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별도의 저장소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페이코 앱 내 한번 발급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인증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우선 페이코 앱에서 페이코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24와 국제청 홈택스에서, ‘간편서명 로그인’ 탭에서 페이코를 선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인증요청을 클릭한 뒤, 페이코 앱으로 이동하면 본인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카카오는 2020년 말 행정안전부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를 수십 곳의 공공사이트까지 확대했다.

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약관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만으로 유효기간 2년 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통 3사의 PASS 인증서는 간편한 사용성과 통신정보 조항을 통한 강력한 보안성을 강점으로, 국제청 홈택스·정부24·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등 정부 사이트와 현대카드·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 등 다양한 제휴사에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PASS 앱을 통해 약관동의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인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PASS 인증서로 국제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이패드 에어4,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한편, 토스 인증서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연말정산 인증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토스 플랫폼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뉴욕증시 자진 상장폐지 ‘디디추싱’ 中 규제에 홍콩 이전 상장 ‘가시밭길’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당국 만류에도 해외상장 고집  
 고강도 보안 조사에 백기 투항  
 정부 조사 결과·앱 재등록 관련



디디추싱 직원들이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하 디디)이 사상 초유의 자진 상장폐지라는 백기를 들었지만 홍콩으로의 이전 상장 역시 녹록치 않다. 중국 정부는 아직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퇴출됐던 앱의 재등록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디디는 상장 폐지에 대해 홍콩 증권거래소와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단 2분기 상장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디는 지난해 12월 뉴욕 증시에서의 상장 폐지를 공식화하고,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유례없는 자진 상장폐지의 이유는 중국 당국의 규제압박이다.

디디는 지난 6월 30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44억 달러에 달하는 자

디디에 대한 고강도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디디 경영진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FT중문망에 “이번 조사에서 디디가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에 넘겼거나 국가 안보에 해가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디디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디디는 정부를 달래기 위해 중신(CITIC) 등 국영기업 등을 투자자로 유치하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보진 못했다.

홍콩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디디가 홍콩에 상장하는데 있어 정부 조사의 공식적인 결론과 앱의 재등록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거래소의 상장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적도 부진하다. 디디의 작년 3분기 매출은 427억 위안으로 1.7% 감소했으며, 304억위안 손실을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증권업계 “청약증거금 100兆 안팎 전망”

≫ 1면 ‘LG엔솔 청약 첫날...’서 계속

하이투자증권 경쟁률은 17.52대 1이다. 청약건수는 24만906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4.48주이다. 하나금융투자 경쟁률은 56.18대 1이다. 청약건수는 50만482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2.19주이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 경쟁률은 11.45대 1을 기록했으며 청약건수는 27만941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3주다

이날 청약 시작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부터 청약 증거금은 11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일반 청약 첫날 오전 11시 기준 증권사 5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이 총 3조4404억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4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증권사별 배정 물량은 KB증권이 486만9792주(45.8%)로 가장 많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243만 4896주로 22.9% 비중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은 각각 22만1354주로 2.1% 수준이다.

최근 한달 사이 신규계좌 개설 건수 증가율은 KB증권이 195.48%, 신한금융투자가 91.04%, 대신증권이

332.75%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증권가는 당초 이틀 간 250만명이 참여해 평균 균등배정수 2~3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첫날 오전에만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최소 증거금 150만원을 투자해 2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할 때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을 기록할 경우 96만원 (78만원 × 2 = 156만원 - 60만원)의 차익을 얻는다.

증권업계에서는 LG엔솔이 기차용 배터리 시장 2위 기업인 만큼 청약증거금이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반 공모 청약증거금 규모에서 81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지며 가족 계좌를 동원한 청약자들도 생겨났다”며 “이대로라면 400만명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일반 청약자에게 전체 공모 주식의 25~30%인 1062만5000~1275만주를 배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